

# 부동산PF '비상'...금융권 대출 잔액 131조·연체율 2% 돌파

### 올들어 3개월만에 1조3천억 ↑...증권사 연체율 15% 넘어 '심각' 금감원, 부실·부실 우려 사업장 66곳 정상화 작업 추진·펀드 가동도

금융당국이 금융 시장 안정을 위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관리에 나서고 있으나 금융권의 대출 잔액이 131조원을 돌파하고 연체율도 2%를 넘어서는 등 곳곳에 적신호가 켜지고 있다.

일부 증권사의 경우 부동산 PF 부실 규모가 임계치를 넘어서는 것으로 보여 강력한 선제적 채무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다급해진 금융당국은 증권사에 부실의 뇌관이 되지 않도록 부동산 PF 연체율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라고 주문하고 나섰다.

20일 금융감독원은 국민의 힘 윤창현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금융권의 부동산 PF 대출잔액은 131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12월 말 130조3000억원에서 3개월 만에 1조3000억원이 늘었다.

금융권의 부동산 PF 대출잔액은 2020년 말까지만 해도 92조5000억원으로 100조원을 넘지 않았는데 2021년 말 112조9000억원 등 매년 급증하고 있다.

문제는 지난해 부동산 시장 침체로 수익성 및 자금 회수에 문제가 생긴 부동산 PF 사업장이 늘면서 심각한 수준으로 연체율이 올라가고 있다는 점

이다.

금융권의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은 올해 3월 말 기준 2.01%로 지난해 12월 말의 1.19%보다 0.82%포인트 급증했다.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은 2020년 말 0.55%, 2021년 말에는 0.37%에 불과했는데 올해 3월 말에는 2%를 넘겼다.

업권별로 보면 지난해 12월 말과 비교해 올해 3월 말 부동산 PF 대출 잔액이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은 은행으로 2조2000억원이었고 증권도 8000억원 증가했다.

업권별 올해 3월 말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은 증권사가 심각한 수준이었다. 증권사의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은 15.88%로 2020년 말 3.37%, 2021년 말 3.71%에 비해 10%포인트 넘게 급증했다.

지난해 12월 말 10.38%와 비교해서도 5.5%포인트나 뛰었는데, 부동산 PF 부실이 임계치에 도달했다는 분석이다.

올해 3월 말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사의 부동산 PF 연체율은 각각 4.07, 4.20%로 지난해 12월 말에 비해 각각 2.02%포인트와 1.99%포인트 증가해 증권사와 더불어 저축은행과 카드사, 캐피탈사 등도 위험 지대임을 보였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올해 3월 말 은행의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이 '0'이었고 보험사와 상호금융의 연체율도 각각 0.66%와 0.10%로 양호하다는 점이었다.

이처럼 부동산 PF 부실 문제가 심각해지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은 총력 대응에 나선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지난 4월 말 재가동한 PF 대주단 협

약을 통해 부실 사업장에 대한 '육식 가리기'를 진행 중이다.

협약이 적용된 부실·부실 우려 사업장은 모두 91곳으로 이 가운데 66곳에 대해 만기 연장, 신규 자금 지원 등 정상화 작업이 추진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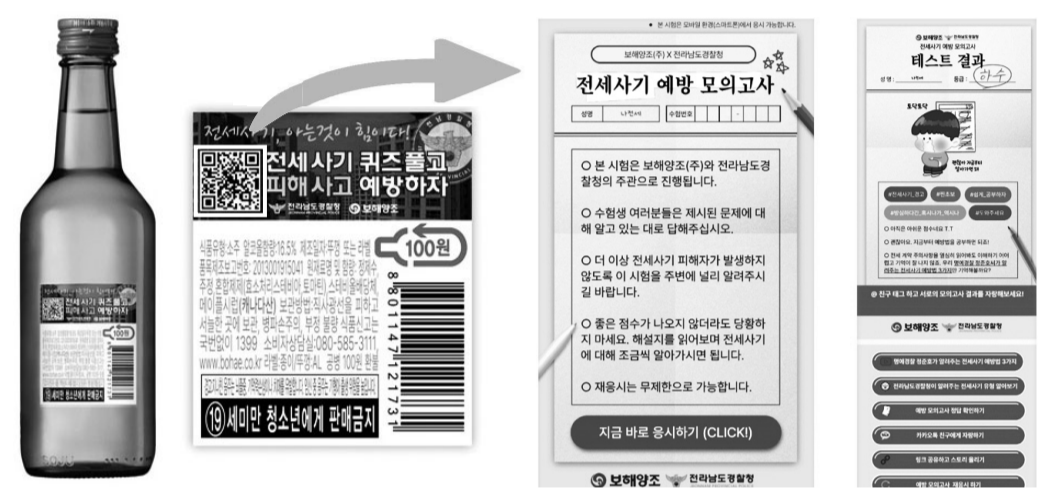
오는 9월 '부동산 PF 사업장 정상화 지원 펀드'도 본격 가동된다.

이를 위해 5개 운용사는 자산관리공사에서 각 펀드에 출자하는 1000억원을 포함해 각각 2000억원 이상의 펀드를 신속히 조성할 예정이다.

윤창현 의원은 "새마을금고의 인출상태에서 보듯 시장은 정부의 대책을 기다려주지 않는다"면서 "일부 증권사의 부실 규모는 임계치를 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선제적 채무조정에 돌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연합뉴스

## "QR코드 찍고 전세사기 피해 예방하세요"



'잇새주' 뒷면에 부착되는 전세사기 예방 홍보라벨. 왼쪽 QR코드를 촬영하면 보화가 만든 전세사기 예방 테스트 페이지로 연결된다.

보화가 전남경찰과 함께 만든 '전세사기 예방 모의고사' 테스트. 테스트 결과를 마친 후에는 전세사기 관련 유튜브 콘텐츠 연결, SNS 공유 등이 가능하다.

### 보해양조, 전남경찰청과 캠페인

보해양조(대표이사 임지선)는 전남경찰청(청장 이충호)과 전세사기 피해 예방 캠페인을 펼친다고 20일 밝혔다.

보해는 '잇새주' 제품 뒷면에 전세사기 예방 홍보라벨을 부착해 이달 말부터 광주·전남 지역에 약 60만병을 공급한다. 라벨에 있는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면 전세사기 예방 온라인 페이지로 접속된다.

해당 페이지에는 보해와 전남경찰이 함께 기획한 '전세사기 예방 모의고사' 테스트가 담겨있다. 전세계약약을 앞둔 당사자들은 물론 사전 지식이 없는 이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전세사기 예방 모의고사'는 부동산계약 시 점검해야 할 사항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확인하는 테스트다. 총 10문항으로 테스트 결과에 따라 전세사기 예방해결책을 제시해준다.

보해는 지역과 상생을 실천하고자 10년 동안 무상으로 후면라벨을 제작해왔다. 이번 캠페인도 광

주·전남에서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고자 기획했다.

이날 전남경찰에 따르면 최근 1년간 전남에서 검거된 전세사기 피의자만 30여명을 웃돌며, '무자본 갑투자', '오피스텔 전세사기' 등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범죄가 이어지고 있다.

보해양조 관계자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속출하는 상황에서 단순한 홍보라벨 제작보다는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갖고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캠페인을 진행하고자 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이색적인 후면라벨 제작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 삼성전자 'Neo QLED 8K'로 워너 브라더스 신작 예고편 만난다

### 세계 6만5000개 매장에서 선보여

삼성전자는 전 세계 6만5000개 이상의 매장에서 'Neo QLED 8K TV'로 워너 브라더스가 제공하는 기대작 영화 예고편을 8K 화질로 선보인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주에 개봉한 신작 영화 '바비(B Barbie)'의 예고편은 8K 영상으로 전세계 주요 매장에서 만날 수 있다.

초대형 Neo QLED 8K의 생생한 화질로 상영된 영화 예고편은 팬들과 소비자의 이목을 사로잡아 8K 콘텐츠에 대한 관심을 끌 것으로 삼성전자는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 전세계 주요 매장에서 삼성전자 Neo QLED 8K를 통해 ▲둔: 파트2(Dune: Part Two) ▲웡카(Wonka) ▲아쿠아맨2(Aquaman 2) 등 워너 브라더스의 기대작의 예고편을 개봉 시즌에 맞춰 8K 화질로 선보일 예정이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삼성전자 모델이 영국 런던에 위치한 삼성 브랜드 쇼케이스 '삼성 킹스크로스'(Samsung KX)에 전시된 Neo QLED 8K를 통해 신작 영화 예고편을 선보이고 있다. <삼성전자 제공>

## 낮은 금리에...전남도, '소상공인 이자지원 사업' 5배 급증

### 전국 최초 추진...2%대 금리 용자 규모 1500억원으로 확대

전남도가 소상공인들을 위해 시행한 특별 이자 지원 사업 신청자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무려 5배가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도내 소상공인들의 자금난이 한계치에 달했다는 의미다.

20일 전남도에 따르면 고금리로 어려운 소상공인 부담 경감을 위해 전국 최초로 추진한 '전라남도 소상공인 특별 이자지원 금융권 상생협력 사업'에 대한 2분기(4-6월) 신청이 1022건(약 290억원)에 달했다. 시중에 출시된 소상공인 대출상

품 중 전남도 이자 지원을 통한 대출금리가 가장 저렴한 소상공인의 수요가 집중했다는 분석이다.

전남도는 은행 가산금리를 신용 구간에 따라 차별화해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누구나 평균 2%대 낮은 금리로 이용하도록 했다. 특히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저신용 소상공인에 대해 이자 지원을 더 우대 지원하고 중·저신용자가 차별 없이 동일한 혜택을 누리도록 지원제도를 중점 개선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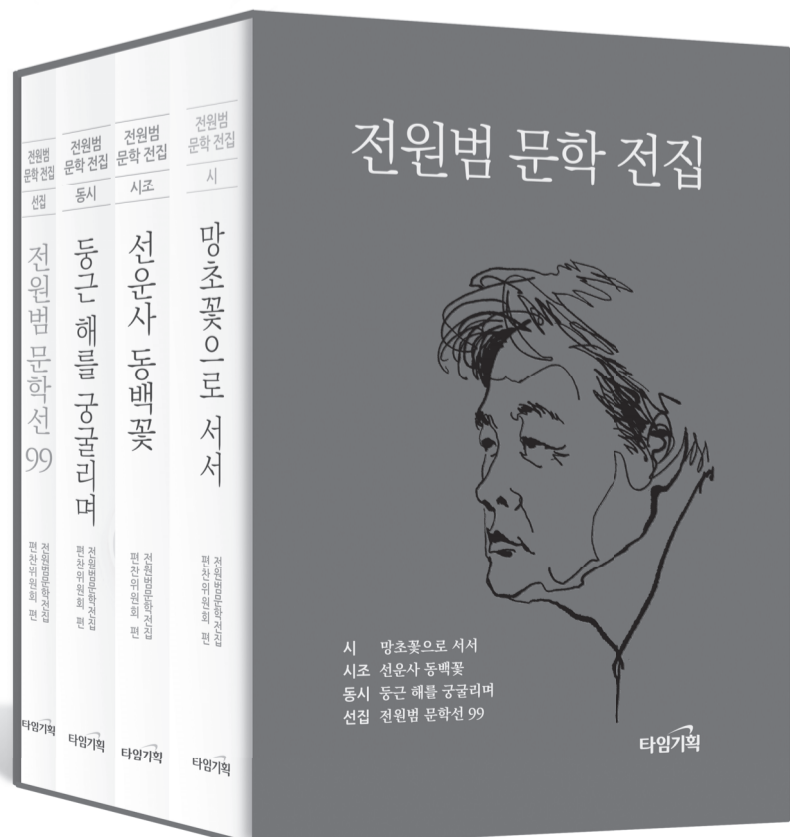
신용 4등급 이하 중·저신용자의 경우, 시중 대출금리에 비해 최대 6% 정도 감면 혜택을 받도록 해 1인당 연간 최대 140만~150만 원 수준의 이자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했다.

또 전남도는 역대 최초로 이차보전율을 2~2.5%에서 3~3.5%로 1%포인트 올리고, 기존 용자 규모를 1000억원에서 1500억원으로 확대하는 등 예산을 최대한 투입해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가라앉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수요가 급증하자 전남도는 3분기(7-9월) 이자 지원 자금을 신규 및 전환 고객 수요를 고려해 500억원 수준으로 배정하고 지난 3일부터 접수를 시작했다.

'전라남도 소상공인 특별 이자지원 금융권 상생협력 사업'은 전남도가 8개 금융기관, 전남신용보증재단과 협력해 1500억원 규모의 자금을 배정, 소상공인 금융부담 경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멀고 먼 옛날의 사람들은 완행열차로 떠나갔는데



### 전원범 문학 인생 60년 기념 전원범 문학전집(시·시조·동시·선집) 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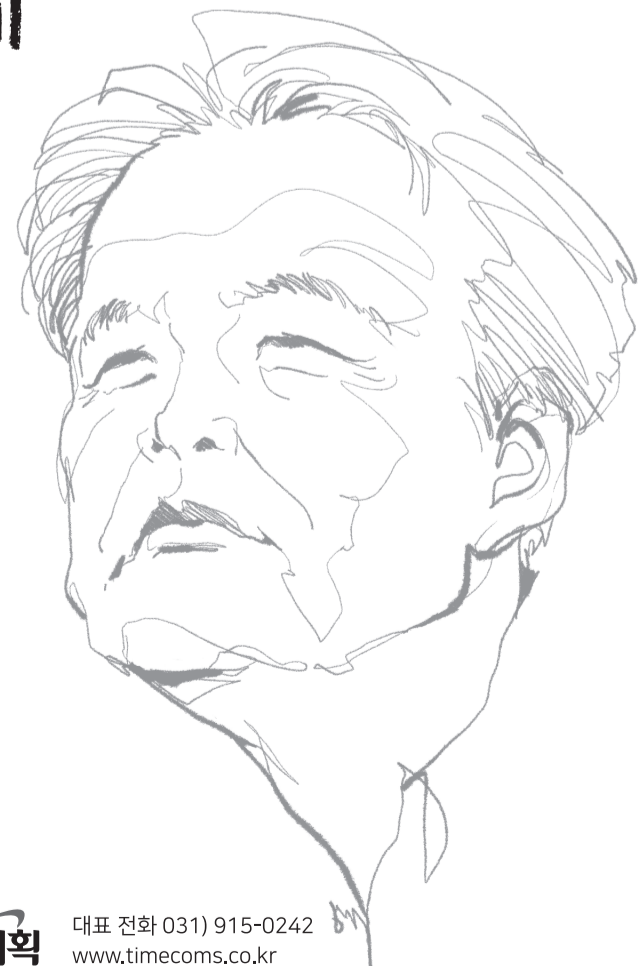
인간의 영혼이 만들어 내는 숭고한 정신과 삶의 역사에 대한 진지한 성찰을 깊은 서정 속에서 펼쳐 보이는 전원범의 시는 시의 미적 형식을 넘어선 자리에서 인간과 삶과 자연의 아우라를 정리하는 통찰을 제공한다. -오윤호(문학평론가)

전원범의 시조가 보여 주는 주된 정조는 그리움이며, 쓸쓸하면서 맑은 정신 지향은 번잡한 우리 현대인들에게 마음의 휴식처를 마련하여 준다. -염창권(시인, 광주교대 교수)

전원범 동시 세계의 축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 해와 하늘과 꽃이다. 그는 이를 통해 밝고 맑고 아름다운 동심의 세계를 표현한다. -이준관(시인, 아동문학가)

전원범 문학전집 세트 총 4권, 100,000원

'망초꽃으로 서서'(시 전집) '동근 해를 궁굴리며'(동시 전집)  
'선운사 동백꽃'(시조 전집) '전원범 문학선 99'(선집 전집)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 판매 중



타임기획 대표 전화 031) 915-0242  
www.timecoms.co.kr